

보도해명자료 (17. 10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4.8%인 신재생 에너지, 7%로 부풀린 정부

(17. 10. 26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지난 24일 ‘탈원전 로드맵’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다른 ‘신재생에너지’ 관련 통계를 제시
 - 로드맵에는 작년 기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7%라고 발표했으나, 산업부가 지난 8월 산업위에 제출한 자료 등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.8%
- ☐ “신재생에너지 20% 목표달성이 수월해보이도록 정부가 유리한 통계를 갖다 쓴 게 아닌지 의문”
 -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자급용 발전량이 빠져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‘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7%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“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”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사업용·자가용 발전설비를 모두 포함한 수치
-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사업용 기준, 사업용·자가용 포함 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계 가능



- ☐ 다만, 신재생 보급목표는 사업용과 자가용을 모두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
 - 정부도 그러한 방식으로 보급목표 관리를 하고 있고, ‘30년 국가 전체 발전량의 20% 이상을 신재생에너지(사업용·자가용 포함)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
- 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자가용(자급용) 신재생 발전량이 빠져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 -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 연도별 발전량 전망은 자가용을 포함한 수치임
 -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자가용 신재생 발전량을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

※ 문의 : 신재생에너지과 전병근 과장(044-203-5160)
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